

강진원 강진군수, 전남도교육감 면담 현안사업 건의

강진 축제와 교육의 만남, 교실 벗어난 살아있는 배움터 강조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참여·다산학생수련원 건립 속도 요청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21일 전라남도 교육청을 방문해 김대중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지역 교육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학생이 참여하는 지역축제 공동사업 운영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가속화 ▲전남미래국제고, 전남생명과학고 베트남 유학생 선발 확대 등 핵심 교육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긴밀한 협력을 제언했다.

특히 강진군은 교육청과 협력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강진만 생태공원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생태를 소재로 하여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공동으로 발굴해

추진 할 방침이다.

더불어 매년 2월 개최되는 강진 청사축제는 K-컬처의 원조이자 전통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강진군의 대표 축제로, 학생들이 전통문화와 예술을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지역 축제 콘텐츠를 직접 기획·운영 해보는 진로체험형 교육 기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 군수는 이번 면담에서 '다산학생수련원 건립'의 적극 추진도 강조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획일적인 수련 활동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융복합 교육공간을 조성해 미래인재 양성·인성·감성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4월, 강진군



과 도교육청은 MOU 체결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조속한 사업 진행으로 강진군의 교육 인프라가 하루빨리 확충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개교를 앞둔 전남미래국제고와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의 베트남 유학생 선발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 지역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의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계절근로자 수요도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다.

강진군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비해 지난 2013년부터 베트남 하우장성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육·노동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협력해 베트남을 포함한 해외 우수 유학생 선발 확대를 지역사회 취업과 정주를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적극 제언했다.



천년 숲에 물든 보랏빛 향연 함평군 향교 숲, 맥문동 만개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 숲이 여름 끝자락, 보랏빛 맥문동으로 물들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휴식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지정된 향교 숲은 수백년을 버텨온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가 어우러진 장엄한 고목 숲으로, 오랜 세월 지역민의 쉼터이자 역사·문화적 상징으로 사랑받아 왔다.

이 숲에 심어진 맥문동은 8월 중순부터 피어나 9월 초 절정을 이루며, 고목이 드리운 그늘 아래 보랏빛 웅덩처럼 숲을 수놓는다.

숲 사이로 이어진 꽃길은 짙은 녹색과 어우러져 산책과 사진 촬영에 더없이 좋은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으로 올해부터 맥문동 식재 면적을 본격적으로 넓히고 있어, 향후 숲 전체를 사계절 머물고 싶은 힐링 공간이자 전국에서 대표적인 맥문동 관광명소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인근 함평 향교와 월산사를 연계한 국가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숲과 꽃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은 "천연기념물 숲은 학술적 가치뿐 아니라 군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생활 속 힐링 공간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맥문동 개화기에 숲을 찾는 분들이 고목의 위용과 보랏빛 꽃길의 낭만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2023년 시범 식재를 시작 함평/전광훈 기자

고흥군,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준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9일 고흥읍 등암리 일원에 조성한 실내 드론체험 놀이터 준공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고흥군 기관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실내 드론체험 놀이터는 2022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흥군의 3대 미래전략산업 중 하나인 드론 산업을 특화하고 보육환경 개선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56억 원(지역발전특별기금 38억 원, 군비 14억 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투입해, 고흥읍 등암리 62-3

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은 어린이 놀이존으로 미끄럼틀과 트램펄린 실내 놀이시설을 갖췄으며, 중정 구간에는 야외 드론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2층에는 드론 조종 기초 교육장과 실내 드론 축구장 등 체험 공간을 조성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어린이들이 드론에 친숙해지고 미래 첨단기술 관련 진로를 자연스럽게 탐색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드론체험 놀이터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고흥, 미래세대가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앞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연계한 단체 체험 프로젝

램을 운영하고, 드론 관련 행사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시설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정식 개관을 위해 사전 준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9월 23일 개관할 예정이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올해 5-8월 외식업소 13개소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영업자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마쳤다. 외식업소 현장 방문으로 사전 진단을 실시한 영암군은 업소별 현황을 분석해 ▲경영관리 ▲홍보마케팅 ▲친절서비스 교육 ▲메뉴개선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서비스 혁신과 매장 운영

영암 13개 외식업소, 더 친절하게 손님 맞는다 '기존 영업자 맞춤형 전문 컨설팅'... 경쟁력 제고 등 뒷받침

전반에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홍보 등 고령 영업주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에 주력해 매출 확대에 나서도록 도왔다.

찾아가는 친절서비스 교육에서는 영업주 고객 응대 태도, 서비스 마인드 등의 향상을 도모했다. 영암군은 이번 컨설팅 전반이 음식점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외식업소의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식 영암군 관광과장은 "변화하는 외식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전문 컨설팅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외식업소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미식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5% 특별 할인 판매하고, 12월까지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할인은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 모두 12월까지 15% 할인 판매를 하며, 1인당 구매 한도

진도아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 12월까지 구매 한도 상향

를 월 100만 원, 연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 상품권은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제한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의 선할인 방식 대신,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결제할 때 5%의 환급금

(캐시백)을 지급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협 등 관내 18개 금융기관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특별 할인은 예산이 소진되면 즉시 종료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도아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고, 지역 내 추가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연내에 모바일 상품권 판매 정책을 전환한 방식에서 결제 후 환급금(캐시백) 적립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민·관광객이 안심하는 담양, 교통안전 대상 2년 연속 수상 제17회 광주·전남 교통·사회안전 대축전 교통안전 부문 종합대상

담양군은 27일 광남일보가 주관한 제17회 광주·전남 교통·사회안전 대축전에서 교통안전 부문 종합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성과다.

담양군은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주요 관공지인 죽녹원, 메타프로방스, 관방제림 등에는 주말과 연휴마다 교통안내원을 배치해 혼잡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했으며, 경찰서와 민간단체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활주로형 건물목 정비,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형광 안전조끼와 농기계 부착용 반사 스티커를 제작·보급하는 생활밀착형 안전대책도 추진해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그동안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들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